【 2019.7.4(목) 강원일보 】

대한건설협회 도회 임직원 연석회의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3일 도회 회의실에서 제22대 대한건설협회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대규모 공사 지역 외무 공동도급과 건설 수주 확대 등 건설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 2019.7.4(목) 강원도민일보 】

건설협 도회 임원회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3일 도회관에서 제22대 집행부 출범식과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 2019.7.4(목)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임원연석회의… 선출직 대표회원 의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3일 제2차 임원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협회 일반현황 보고, 임원현황 보고, 회의관련 업무 및 운영계획이 보고됐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도 발표됐다. 윤리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이 부의사항으로 올라와 의결됐다. 18명의 선출직 대표회원도 의결됐다. 대표회원은 지역별로 춘천(4), 원주(6), 강릉(2), 속초(1), 횡성(1), 양구(2), 인제(1), 양양(1)에서 선출됐다.

국토부,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상반기보다 2.39% '⬆' 비계 등 82개 공종 개선

올 하반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가 2.39% 올랐다. 공사비지수 반영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 공사비가 소폭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를 최근 공고했다.

공사비지수 반영방식도 변경
공사비 소폭 상승효과 기대

이달부터 적용되는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1040개, 건축 459개, 기계 342개 등 총 1841개 공종이다. 이 가운데 가설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배관/소방공사 등 82개 공종이 이번에 개정됐다.

비계(13.2% ↑), 동바리(10.0% ↑), 유로폼(11.9% ↑), 콘크리트타설(5.6% ↑), 철근가공조립(17.5% ↑) 등 주요 공종 대부분이 현실에 가깝게 개정됐다. 82개 공종의 평균 단가 상승률은 11.09%에 달한다.

82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 적용되는 공사비지수 반영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공사비지수를 일괄 반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재료비·경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지수를,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노무비지수를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70~80%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같은 비중으로 노무비 반영비율도 높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종 도출된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올 상반기에 비해 2.39% 상승했으며,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총액 상승률은 1.044%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82개 공종이 건설현장의 실정과 비슷하게 개정·반영돼 하반기에는 현장의 실행률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협은 다음주부터 각 시·도회를 통해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개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는 실적공사비를 대신해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부 공종을 조사해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까지 실적공사비 대비 누적 단가상승률은 23.14%에 이른다. 전체 공종은 1968개로 출발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가설공사(23개), 철콘공사(13개), 관공사(27개), 배수공사(34개), 조적공사(28개), 미장공사(23개) 등 총 148개 항목을 조사해 내년 상반기 단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회훈기자 hoony@